



지난 25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문화재단 시민 문화정책 토론회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

내가 제시한 의제가 문화 정책이 된다면?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 토론회 현장 리뷰

문화시설, 생활문화, 도시재생, 문화공간 등 7개 분야 100여명 시민 그룹 10개조 문화예술 주요 의제 토론

백가쟁명(百家爭鳴). 여러 사람이 모여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벌인다는 의미다. 광주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계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백가쟁명'의 장이 펼쳐졌다.

지난 25일 오후 7시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문화재단 시민 문화정책 토론회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이다.

열 개의 원탁 테이블 중앙에는 도시재생, 문화복지, 문화행정, 생활문화 등 문화예술계 주요 의제가 적힌 팸플이 놓였다.

이름표 목걸이를 맨 참가자들이 사전 인터뷰를 통해 미리 정해진 자리에 착

석해 팀원들과 화기에애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그 실행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가, 시민단체,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별한 규칙도 적용됐다.

'모든 사람은 지혜가 있다. 어떤 연령이든 성별이든 어떤 직업이나 경험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의견은 동등

하게 귀중하다.'

서로가 배려하는 가운데 각자의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워진 기준이다.

제안된 의제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만, 이날 자리에서 나온 의견은 모두 기록돼 광주문화재단에 전달된다.

시민단체의 신나는 프린지페스티벌 주제곡으로 막을 올린 행사는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테이블 위 펼쳐진 이미지 카드를 하나 골라 자신을 소개하며 자연스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각 조에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돼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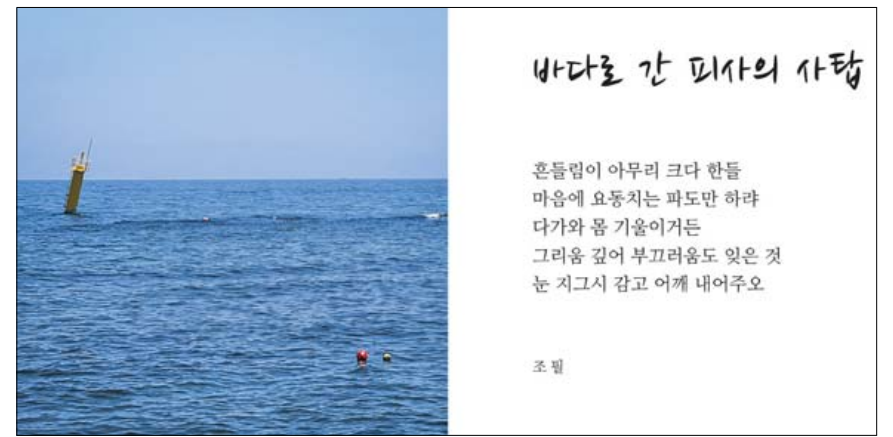
10개 조에서는 공통된 주제 속 자신의 안건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면서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안건을 선정했다.

모둠별 토론을 통해 결정된 의제는 다양한 형식의 1분 분량 발표 영상으로 제작됐다. 이후 구글 폼 형식을 통해 최종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정책 아젠다 선정에서는 광주급남 지하상가 공실 점포를 공연예술 연습공간 및 미술작품 수장고로 활용하는 안건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문화 교육에 대한 제안이, 광주 문화시스템 플랫폼의 원스탑 서비스 필요성이 3위로 선정됐다.

1, 2, 3위로 선정된 의제들은 오는 10월 '시민과의 열린대담', 컨설팅 등을 거쳐 문화 정책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이날 백가쟁명 토론회에 참석한 작곡가 이승규 씨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어보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다"며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취지의 행사가 열려 의미가 깊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자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조필작 '바다로 간 피사의 사탑'

무등디카시촌, '디카시를 말하다' (디지털카메라+詩)

1-7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현대사회 문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디카시의 진정한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창작집단 무등디카시촌(회장 조필)은 오는 9월1일부터 7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관에서 '디카시를 말하다' 디카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디카시에 대한 이해와 디카시 회원들의 작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강만, 기정남, 김형순, 김방순, 김성룡, 김용갑, 김태은, 김혜숙, 서복현, 손덕순, 신옥비, 이기중, 이도영, 이연례, 임인택, 장미자, 조필, 조형연 총 18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일상 속 풍경, 자연의 아름다움, 가족을 향한 사랑 등이 담긴 사진을 찍고 이와 함께 각자가 느낀 문학적 감흥을 5행 이내로 짧게 서술해 디카시로 표현해냈다.

조필 무등디카시촌 회장은 "디카시는 언어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카테고리를 영상과 멀티언어로 확장한 것이다"며 "무등디카시촌의 이번 전시가 더 많은 독자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등디카시촌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인 및 문학애호가들로 구성된 창작집단이다. 디카시 작품 감상 및 쓰기는 물론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디카시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회원 정기전, 동인지 발행을 함께 하고 있으며 청소년 디카시 문학제 등을 준비 중이다. /최명진기자

GB작가스튜디오탐방 박인선을 만나다

오늘 광주비엔날레 유튜브 공개

(재)광주비엔날레가 8월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박인선 작가를 만났다.

재단은 29일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에서 박인선 작가 작업실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

서양화를 전공한 박 작가가 사진을 직접 찍고 그것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이유, 작업 소재로 집과 자연을 선택하게 된 계기,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 인터뷰와 대표작품 소개로 구성됐다.

작가는 재개발로 외갓집이 철거되는 과정을 목격한 뒤 기억이 담긴 집이 사라지는 것과 그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가 만든 획일화된 도시 풍경에 대한 단상을 '새로운 탄생', '뿌리' 시리즈 등에 담아왔다.

최근에는 자연과 도시가 유기체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둘을 잇고, 형태가 없는 물이라는 소재에 대한 관심을 '응집, 그리고 이완', '물



박인선작 '물(흐름(세 개의 파도))'

즐거', 'seed' 등으로 표현한다.

작가 연구 담론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 작가스튜디오탐방에는 윤익 비평가가 매칭됐다. 비평가의 작가 연구 결과물은 (재)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노래로 소원하는 평화"

평화를 향한 뜨겁고도 애뜻한 마음을 담아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 펼쳐진다.



이런 공연에서는 아름다운 시를 노래로 전하는 시노래 가수 박경하가 출연해 '들꽃', '손거울', '꽃신'을 부르며 따뜻한 음악을 통해 위로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어 포르투갈 민속음악 '파두'를 연주하는 공연팀 소뉴가 향수와 그리움, 슬픔과 애절함

8월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30일 광산문화예술회관

등 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있는 음악을 그들의 색깔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실력과 밴드 프로로그가 함께 한다.

김원중 연출은 "평화의 바람이 절실한 요즘, 남과 북이 이어진 이 길의 간격이 너무 넓은 길이 아니었으면 한다"며 "다시 두 손을 맞잡을 우리를 꿈꾸며 8월 공연도 함께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부터 시작된 '김원중

의 달거리'는 지역 아티스트와 청년 음악인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공연을 통해 매달 시민들과 만나는 상설공연이다. 우리나라 분단 상황 등 민족적 아픈 현실을 예술가들의 다양한 메시지로 담은 공연을 통해 지역의 공공예술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평화콘서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라인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김원중 홈페이지(www.kimwonjoong.com)에서 만날 수 있다. /최명진기자

방수제·비막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100% 친환경제품 (비노출)

민감한 부속재, 기공부, 차원이 다른

특수 재료인 HYDRALIX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들뜨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 (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탐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름

유시용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방수·비막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특허청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한국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